

일본, 식육(食育) 추진 기본계획 개요

정은미*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거리는 생명의 원천이며 인간은 유구한 역사에서 먹거리를 통해 풍부한 지식, 경험, 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러나 현대인은 바쁜 일상생활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건전한 식생활과 멀어지고 있다. 나아가 먹거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먹거리 정보가 범람해도 국민은 올바른 정보를 적절히 선별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7월 ‘식교육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 내각부에 설치된 ‘식육추진회의’(회장 내각 총리대신)는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협력하는 국민운동으로 식교육을 추진하도록 2006년 3월 ‘식육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실시되는 ‘식육추진 기본계획’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eongem@krei.re.kr 02-3299-4311

1. 머리말

1.1. 먹거리를 둘러싼 현상

최근, 건전한 식생활을 상실해가고 있는 일본에서 먹거리를 둘러싼 현상은 위기적 상황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이 향상하고 먹거리가 외부화하고 다양해졌지만 지방질의 과잉섭취, 채소 섭취 부족, 아침식사 거르는 습관 등 영양이 편중되고 식습관이 혼란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만과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과도한 저체중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의 활력을 저하시키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과 사회가 나서서 어린이 식교육을 비롯하여 생활관습병 예방, 고령자의 건전한 식생활과 즐겁게 식탁에 둘러앉을 기회 확보, 식품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이해 증진, 식료자급률 향상, 전통적인 식문화 계승이 필요하다.

1.2. 지금까지 추진과 앞으로 전개

지금까지 식교육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위기적 상황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기본계획에 입각해 국민운동으로서 식교육을 추진하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전한 심신과 풍부한 인간성을 기를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2. 식교육 추진 시책에 대한 기본적 방침

2.1.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과 온화한 인간형성

건전한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서로 다름을 배려하

며 심신 건강 증진과 온화한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는 시책을 마련한다.

2.2. 먹거리에 관한 감사의 마음과 이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이해가 넓어지도록 배려된 시책을 마련한다.

2.3. 식교육 추진운동 전개

국민 개개인의 이해를 얻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 공동참가를 권장하며 식교육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국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며 연계하는 국민운동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2.4. 어린이 식교육에 보호자, 교육관계자의 역할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 교육·보육 관계자의 의식향상을 도모하며 어린이가 즐겁게 먹거리를 배울 기회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2.5. 먹거리에 관한 체험활동과 식교육 추진활동의 실천

가정, 학교,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에게 먹거리를 배울 기회가 제공되고 국민이 의욕적으로 식교육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2.6. 전통적인 식문화, 환경과 조화된 생산을 배려하며 농산어촌 활성화와 식료자급률 향상에 공헌

전통적인 식문화 계승이나 환경과 조화된 식료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식료수급에 국민의 이해 촉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를 통해 농산어촌 활성화와 식료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2.7. 식품안전성 확보에 식교육의 역할

식품안전성 등 먹거리에 관해 폭넓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하면서 행정, 관계단체, 소비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3. 식교육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1. 목표의 지향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이해하고 공통 목표를 세워 협력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개하려면 성과나 달성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정량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다.

3.2. 식교육 추진에 따른 목표치(2010년)

- (1) 식교육에 관심을 갖는 국민 비율 : 70%(2005년) → 90% 이상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식교육 실천을 결심해야 하는데 우선 보다 많은 국민이 식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 (2) 아침식사를 거르는 국민 비율

: 초등학생 4%(2000년) → 0%

: 20세대 남성 30%, 30세대 남성 23%(2003년) → 15% 이하

국민 식생활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일이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국민 비율 감소를 목표로 한다.

- (3)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 : 21%(2004년, 식재료 기준) → 30% 이상

학교급식에 “얼굴이 보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먹거리 지도에 “살아 있는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린이가 식재료를 통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산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의 노력이나 먹거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며 지산지소(地產地消)를 추진하는데도 유효한 수단이다. 학교급식에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4) ‘식사 균형 가이드’를 참고하여 식생활하는 국민 비율 : 60% 이상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식사량을 파악하여 적합한 식사를 해야 한다. ‘식생활지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좋은가를 알기 쉽게 나타난 ‘식사균형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식사균형 가이드’, ‘식생활 지침’, ‘일본인 식사 섭취기준’ 등 식생활 지침을 참고로 식생활하는 국민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한다.

(5) 내장지방증후군(메타포릭 증후군 : 대사기능 부조화)*를 인지하는 국민 비율 : 80% 이상

생활습관병이 있는 환자나 질병 예비군이 될 사람들은 내장지방형 비만이나 그에 따른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이 중복적으로 발병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내장지방 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생활관습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습관을 기르며 건전한 식생활로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장지방 증후군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한다.

*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촉진시키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생활습관병. 이러한 질병은 따로따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의 빙산에 수면 위에 나타난 몇 개의 산’과 같은 상태이기에 투약만으로는 수면 위로 나온 빙산의 일부분만 없앨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식생활 개선과 철저한 운동습관 개선으로 ‘빙산 전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 (6) 식교육 추진에 관련된 자원봉사자의 수 : 현재의 20% 이상 증가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국민 개개인의 식생활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 생활에 밀착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달성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식교육 추진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 수 증가를 목표로 한다.
- (7) 교육 농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정촌(市町村)의 비율 : 42% → 60% 이상
 먹거리에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물 생산에 관한 체험활동의 기회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연의 은혜나 먹거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일련의 농작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농장이 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정촌(市町村)의 비율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 (8)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는 국민 비율 : 60% 이상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정히 식품을 선택할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 안전한 취급법이나 식품 선택법 등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는 국민 비율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 (9) 추진계획을 작성·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의 비율 : 도도부현 100%, 시정촌 50% 이상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여러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고 기본법에서는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추진계획 작성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식교육의 종합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국가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4.1. 가정에서 식교육 추진

○ 생활리듬 향상

아침 식사 섭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등 어린이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육성하고 생활리듬 향상을 위해 전국적인 보급개발 활동을 하며 지역단위에서 생활리듬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진한다.

○ 어린이 비만예방 추진

생활관습병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기부터 적절한 식생활과 운동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영양과 운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만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바람직한 식습관이나 지식 습득

가족이 먹거리를 즐기며 바람직한 식습관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 보호자에게 식교육의 중요성과 건강미를 포함한 적절한 영양 관리에 관한 지식개발에 노력한다. 또한 식교육 추진에서 가정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식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에서의 예의범절과 자녀 교육에 참고서로 작성된 가정교육 수첩을 유치원아와 초등학생이 있는 보호자에게 배부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 임신부나 유아에 대한 영양 지도

임산부의 안전한 임신·출산, 산후 건강 회복과 더불어 어린이 생애의 건강형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영양 지도한다. 구체적으로 2006년 2월 공표된 ‘임산부를 위한 식생활지침’ 보급개발을 추진하며 임산부의 건강과제나 그 대책을 정확히 알기 위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유아기는 심신기능이나 식행동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유아기~사춘기의

발육·발달단계에 따라 식교육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6년 2월 발표된 ‘즐겁게 먹는 아이에게 -먹거리로 시작되는 건강 가이드’를 보급계발하며 모유육아 추진을 포함한 수유·이유 지원가이드를 작성·배포하는 등 모자간 유대를 높이도록 보건 의료기관에서 유아기 발달단계에 맞게 지도한다.

○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한 형태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가정, 지역주민이나 보육소, 학부모회, 생산자단체, 영양사회 등 관계기관·단체가 연계·협력하여 다양한 식교육 추진사업을 실시하며 가정에서 효과적인 방법의 실천적인 조사연구나 식교육 정보를 발신한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와 가족이 모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보호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교육 보급계발과 영양교사의 실천지도를 소개하는 심포지움을 전국에서 개최한다.

○ 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식교육 추진

식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이벤트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식교육 보급계발을 추진한다.

4.2. 학교, 보육소에서 식교육 추진

○ 지도체제 충실

2005년부터 제도화된 영양교사는 학교 전체에 먹거리에 관한 지도계획을 책정하고 교직원간이나 가정, 지역과의 연계·조정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또 각 학교에서 지도체제의 요점으로서 식교육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원이며 모든 시도부현에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보급계발하며 모든 현직 학교 영양직원이 영양교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강습회를 개최하여 영양교사 면허증을 취득한 학교 영양직원이 영양교사가 되도록 한다.

급식 시간, 가정과나 체육과를 비롯한 각 교과, 종합적인 학습 시간에 먹거리 지도를 하며 학교에서 식교육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먹거리에 관한 지도계획 작성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안내서를 작성·배부하여 각 학교에서 충실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학교장·교직원이 학교에서 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도록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의견계발을 추진한다.

○ 어린이에게 충실한 지도 내용

어린이가 먹거리를 계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먹거리 지도와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추진한다. 특히 학교장의 지도력으로 관계교직원이 연계·협력하고 영양교사가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추진한다. 각 교과, 특별활동, 종합적인 학습 시간 등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 먹거리 지도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학교에서 배려하며 먹거리에 관한 학습교재를 작성·배포하고 활용한다.

지역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농림어업 체험, 식품유통과 조리, 식품폐기물의 재생이용에 관한 체험 등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며 체험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지도자양성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학습지도 요령을 재검토하여 학교 교육활동 전체에서 충실한 먹거리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교육 외에도 식료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해 어린이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작성·배포하며 행정관계자, 관계단체와 연계하여 이들이 어린이를 지도하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교 관계자는 가정, 지역과 연계하면서 식교육을 추진한다.

○ 충실한 학교 급식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먹거리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메뉴 내용을 충실히 하며 각 교과에서도 학교급식이

‘살아있는 교재’로 활용되도록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식생활이나 식재료의 생산에 대해 어린이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지산지소(地產地消)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생산자나 생산에 관한 정보를 어린이에게 전달하고 단독조리 방법의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주지시키고 보급한다. 또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 식교육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추진

어린이의 건강상태 개선이나 학습에 대한 의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영양교사와 양호교사가 연계하여 어린이의 식생활이 건강이나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그 성과를 살린 효과적인 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지도에서는 과도한 저체중과 비만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건강상태 개선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한다.

○ 보육원에서 식교육 추진

보육원은 유아가 인간형성의 기초를 닦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식재료를 만지거나 식사 준비를 비롯하여 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지도를 통해 유아기부터 적절한 식사법이나 바람직한 식습관 정착, 원만한 인간성 육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06년 3월에 공표된 ‘보육원에서 식교육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보육원에서 원장, 보육사, 영양사가 협력하여 보육계획에 연동하여 조직적·발전적인 ‘식육계획’ 책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육원 관계자는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유아기 먹거리 상담에 대응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과 연계하면서 적극적으로 식교육을 추진한다.

4.3. 지역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계획 추진

○ 영양 균형이 탁월한 ‘일본형 식생활’ 실천

일본 기후풍토에 적합한 쌀과 다양한 부식으로 구성되어 영양이 균형된 ‘일본형 식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에서 쌀, 채소, 과일, 우유, 버섯류, 어패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식생활 지침’과 ‘식사 균형 가이드’ 활용 촉진

국민 식생활 개선을 추진하면서 건강증진이나 생활의 질적 향상 및 식료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2000년 3월에 발표된 ‘식생활 지침’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급계발을 추진한다.

‘식생활지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식사의 바람직한 상차림이나 양을 그림을 섞어 알기 쉽게 나타낸 ‘식사 균형 가이드’를 2005년 6월에 공표한 바 있으며 일상생활에 활용하도록 관계기관, 관계단체, 소매나 외식, 직장 식당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활용

국민 개개인이 먹거리 지식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영양사·영양사, 전문조리사·조리사를 육성하며 학교, 각종시설과 연계하여 이들의 다면적인 활동이 추진되도록 한다.

지역에서 식교육 추진이 착실히 이루어지도록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관리영양사 배치를 추진하며 지역에서 영양지도에 합당한 관리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련회를 개최한다.

○ 건강관리나 의학교육에서 식교육 추진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보건센터, 의료기관에서 식교육에 관한 보급활동과 식생활을 지지하는 구강기능 유지에 대한 지도를 추진한다. 또한 시정촌의 건강진료에 맞춰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영양과 운동에 대해 지도한다. 의학교육에서는 식생활과 질병의 관련 등 식교육과 관련

된 교육으로 국민 식생활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에 노력한다.

○ 식품관련 사업자의 식교육 추진

식품관련 사업자는 식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 소비자와의 만날 기회가 많기에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건강을 배려한 상품과 메뉴 제공, 먹거리의 알기 쉬운 정보와 지식제공 등 식교육 추진활동에 노력한다. 예전부터 있었던 공장견학 실시나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식교육 추진이란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에게 적절한 먹거리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또한 직장 식당에서도 건강을 배려한 메뉴 제공, 영양과 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4. 식교육 추진운동 전개

○ 식교육의 달 설정·실시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가 협력하여 식육추진운동을 중점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식교육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6월을 ‘식육월간’으로 정해 각종 홍보매체나 이벤트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정착시키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규모의 중심적인 이벤트를 매년 개최지를 옮겨가며 개최하고 각지에서도 지역적인 이벤트를 펼친다. 가정, 학교, 보육원, 직장에서는 이것을 식교육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호소한다.

○ 지속적인 식교육 추진운동

식육추진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9일을 ‘식육의 날’로 정하며 식교육의 사고방식이 널리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표어를 활용하고 적어도 주 1일은 가족 모두 즐겁게 식탁에 모여 앉도록 호소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이러한 일은 어린이나 보호자 뿐만 아니라 식교육에 관심이 적은 세대에게 보급계발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각종 단체와 연계·협력체제 확립

각종 단체가 연계하여 함께 식육추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의 전국적이고 횡단적인 연계·협력을 호소하며 국민운동으로 식교육을 전개한다. 지역에서도 지방공공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민간 추진에 대해 표창 실시

민간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 전국에서 개최되고 관계자간에 정보 공유가 촉진되도록 민간의 식교육 활동에 대해 표창 실시한다.

○ 국민운동에 도움이 되는 조사 연구와 정보 제공

효과적인 홍보계발 활동이나 식교육 시책의 기획입안에 활용하기 위해 식교육에 관한 국민의식과 식생활 실태를 조사연구하며 그 성과를 공표한다. 식교육 관계자는 물론 널리 국민이 식교육에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식교육 시책,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지방공공단체의 추진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식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운동으로 촉진하기 위해 각지역의 창의적인 내용을 모으고 식교육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나 방법을 수집하여 널리 알린다.

○ 식교육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많은 국민이 스스로 식교육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심히 홍보한다. 세대, 생활환경,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배려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먹거리 정보에 대해 과잉반응하지 않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으로 냉정히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

국민 개개인의 식생활과 직접 관련된 식교육을 국민에게 적절히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밀착하여 활

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식품안전성 등 먹거리의 기본지식 향상과 함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식생활개선 추진인을 비롯하여 먹거리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부자요리교실 등 체험활동과 다양한 보급 계발 활동이 풀뿌리 활동으로서 건강관리를 촉진한다.

4.5.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로운 농림어업 활성화

○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 촉진

도시민과 농림어업자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나 이벤트를 통해 도시민에게 농산어촌의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어촌에 교류창구를 정비한다. 도시에 체험농장이나 농산어촌에 체재형 시민농원도 정비한다.

○ 어린이의 농림어업 체험활동 촉진과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어린이에게 농림수산물 생산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교류창구를 정비한다. 식료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 실정에 따른 홍보물을 작성·배포하며 주문 강좌나 이벤트로 정보를 제공한다.

○ 농림어업자가 참가하는 식교육 추진

농림어업의 체험활동은 농림수산물의 생산현장에 관심과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이며 먹거리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농림어업과 관계단체는 학교, 보육 등 교육관계자와 연계하여 농림어업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지산지소(地產地消) 추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 구축, 먹거리에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추진한다. 각 지역 지방공공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지산지소를 추진하기 위해 실천적인 계획을 책정·실시한다. 지산지소 활동을 위해 인재 육성, 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 정보제공 강화를 추진하며 지산지소 활동의 핵심인 직판시설이나 소비자와의 교류시설을 정비한다.

○ 바이오매스 이용과 식품 재활용 추진

지역에서 생산·배출되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해당지역에 에너지, 공업 원료로 순환이용하는 종합적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 3월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에서 바이오매스 활용계획 작성, 바이오매스 변환·이용시설을 정비하고 바이오매스 변환·이용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지역순환 시스템의 실용화를 도모하고 있다.

식품 재활용에 관해 식품관련 사업자나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책자를 작성·배포하며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가정의 식생활 실태, 가정과 외식에서 식품폐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식품산업에서 식품폐기물 발생량과 재생이용 실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

4.6.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

식생활개선을 추진하는 자원봉사자가 부모·자녀 요리교실, 체험활동에서 지역 향토요리나 전통요리를 도입하여 식문화 보급·계승한다. 또한 지역축제나 민속공예에 관한 전통문화 보존단체가 실시하는 식문화에 관련된 각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통적인 우수한 식문화를 계승한다.

○ 학교급식에 향토요리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벤트 활용

전통 식문화를 어린 시절부터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학교급식에 전통 식문화를 계승한 메뉴를 도입하고 먹거리를 지도하면서 교재로 활용한다.

식육추진운동 중 전국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움이나 이벤트에서 지역 식문화에 식견이 있는 고령자의 활용에 유의하며 향토요리와 전통요리의 소개와 체험에 많은 국민이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문화활동을 전국 규모에서 발표, 교류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민문화제를 활용하여 지역 향토요리와 전통요리, 그 역사를 널리 전국에 알린다.

○ 전문조리사 활용 지원

식사방식이나 전통적인 행사먹거리 등 풍부한 식문화 양성을 위해 요리 교실이나 체험활동, 각종 이벤트에서 고도의 조리기술을 갖춘 전문조리사를 활용한다.

○ 관련정보 수집과 발신

식육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사례나 방법을 수집·발신하는데 식문화의 보급계발에 관계된 조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 지적 재산의 지원 활동과 연계

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를 작성하고 전통 식재료나 식문화를 비롯한 지역과 풍토에 뿌리를 둔 식문화 형성과 특성 등 식문화의 계승·발전의 기반이 될 조사와 심포지움을 통해 성과를 발신하도록 한다.

4.7. 식품안전성, 영양, 기타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 및 국제교류 추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식품안전성에 관해 국민의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식교육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가 연계하고 소비자, 식품관련사업자, 전문가 등 관계자가 서로 양방향에서 정보 및 의견 교환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한다. 또한 식품안전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역사가 짧고 아직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기에 해외 사례나 식품 이외의 분야 사례를 검토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 식품안전성이나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

식품안전성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홍보책자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며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NPO가 실시하는 의견교환회를 지원한다. 또한 2000년 3월 공표된 ‘건강 일본 21’ 건강지키기 운동으로서 웹사이트나 이벤트를 통해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보급한다.

○ 기초적인 조사·연구 실시

과학에 근거한 섭취열량이나 영양소의 양을 정한 ‘일본인 식사섭취기준’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신체상태, 영양섭취 상태와 생활습관의 관계를 연구하여 식교육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과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생활·영양과 건강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연구기관이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해석하여 공표한다.

식료의 생산 실태에 대해 국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며 식료자급률 향상이나 농림어업 진흥과 함께 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로서 농림어업과 식료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공표한다.

○ 식품 정보에 관한 제도의 보급개발

적정한 식품표시를 위해 표시제도를 제검토하며 ‘식품표시 참관인’ 배치로 감시지도체제를 갖추고 소비자용 홍보책자를 작성·배포하여 표시제도를 보급한다.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정된 생산정보공표 JAS 규격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활동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나 해당단체의 활동 내용의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식교육의 이념과 내용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조사 추진

먹거리에 관한 국제적 공헌으로서는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기아와 영양부족 대책에 협력이 중요하지만 해외에 식교육을 알리고 실천을 촉진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식교육의 이념과 내용을 해외에 알리고 ‘식육’이란 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본 식문화에 대해 국제적인 이해를 높인다. 또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과 식교육에 관한 시책 기획입안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성과를 조사하여 활용한다.

○ 국제적인 정보 교환

식교육에 관한 연구 추진과 견해의 상호활용을 위해 국제기관과 연계하여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해외 연구자 초빙강연회 개최, 해외 식생활 실태조사를 개최한다. 식교육에 관련된 국제기관 활동에 협력하며 정보 공유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연계·교류를 촉진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기아나 영양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관점에서 그 실태나 국제기관의 대책추진 상황정보를 제공한다.

5. 식교육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5.1. 다양한 관계자의 연계와 협력 강화

식교육 추진에는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그 주체도 국민의 건강증진 등 식교육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역에 밀착하여 활동하는 지방공공단체는 물론이며 교육, 보육, 사회복지, 의료 및 보건, 농림 어업, 식품제조, 가공, 유통, 판매, 조리, 요리교실, 기타 먹거리에 관련된 자, 나아가 다양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롭다.

따라서 식교육에 관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관계자가 밀접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이들 관계자들이 창의력을 모아 지금보다 활동의 폭을 넓히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5.2. 도도부현의 추진계획 책정과 그에 기초한 시책 촉진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려면 국민 가까이 있는 도도부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가 협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도 도도부현이 주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도부현의 추진계획이 가능한 빨리 작성되어 관련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지역에 밀착한 활동이 추진되도록 국가에서 적극 독려하며 자료나 정보제공 등을 적절히 지원한다.

5.3.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국민의견 파악

식교육은 개인 식생활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하고 식교육에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많은 국민이 식교육에 흥미를 갖고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식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식교육의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고 실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4. 추진상황 파악과 효과 평가 및 재정조치의 효율적·중점적 운용

식교육에 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상황을 파악하면서 한정된 예산을 유효하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육추진회의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추진이 되도록 목표달성 상황을 포함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널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또한 실시된 시책은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밝히며 그에 따른

시책 재검토와 개선에 노력한다. 나아가 예산의 유효 이용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강화, 정책의 중복 배제, 관계기관의 연계 강화, 국민의 역할분담과 비용분담, 집행상황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한다.

5.5. 기본계획 개선

기본계획은 기본법에 나타난 기본이념과 방향성에 따라 기본계획 작성시점의 모든 정세를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는 항상 변화하며 식교육을 둘러싼 정세도 변할 것이다. 또한 목표달성 상황이나 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에 기초해 시책을 추진하지만 계획기간 종료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재검토의 필요성과 시기를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때는 시책 성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충분히 활용한다.

자료

<http://www8.cao.go.jp/syokuiku/suisin/kihonkeikaku.pdf> 를 발췌 정리